꾸준한 투약이 가장 중요

(간질의 치료)

간질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의 제거와 충분한 정도의 장기적 투약이다. 수술로 제거할 수 있는 뇌종양이나 혈종(血腫)이 있다면 그것은 물론 제거되어야 하고 또한 간질의 형태에 따른 적절한 투약이 오랜 기간에 걸쳐 성실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대부분의 간질이 장기간의 투약을 요하므로 항 경련제의 장기 복용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여성 환자의 경우 임신과 출산에 관한 문제가 봉착할 수 있으므로 이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계속해서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에서의 심리적인 부담이나 대인 관계의 장애, 사회적 활동성의 위축 등에 대한 심리적 대응도 필요하다.

간질이 잘 조절되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큰 문제가 없으나 약을 먹으면서도 간질을 계속하는 약 20%의 환자들에게는 다양한 심리적 갈등, 반복되는 뇌 저산소증에 의한 뇌 기능의 장애, 그리고 성격의 변화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더구나 이들 그룹에서는 간질을 멈추게 하기 위해 갈수록 더 많은 종류의 약물과 더 높은 용량이 요구됨으로써 그런 상황을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 경련성 약물의 지속적인 투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과거에는 몇 종류가 되지 않은 약물로 모든 종류의 간질을 치료하려고 하였던 것이 사실이고 그 때문에 여러 가지 약물의 부작용에도 속수무책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종류의 약물이 개발되어 부작용도 훨씬 적으면서 각자 상태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가능해졌다.

간질의 치료에는 몇 가지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첫째 간질 발작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치료의 목표이다.

둘째는 뇌가 안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유지 요법을 계속 하는 것이다.

셋째는 가능하면 단일 약물의 최소 용량으로써 조절이 되도록 하여 약물에 의한 부작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이다.

그러나 단일 처방과 최소 용량으로서 잘 조절되지 않는 간질은 약간의 부작용을 감수하고

서라도 몇 가지의 약물을 적절히 배합하여 조절해야만 한다. 그 이유는 우선 환자 본인이 느끼는 발작이나 의식 상실에의 불안감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자는 단 한 번이라도 공공장소에서 발작을 일으키고 완전히 통제 불능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심각한 좌절감을 느끼고 대인 관계의 위축을 초래한다. 이것은 곧 사회적 기능의 철퇴(撤退)를 가져오며 때로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자포자기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반복되는 간질 발작이 무호흡 상태로 인한 뇌의 저산소증을 유발시켜 지적(知的)기능의 저하 뿐 아니라 성격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장기간에 걸친 과량의 약물 투여가 성격 변화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약을 먹지 않거나 소량의 약을 불규칙적으로 먹으면서 간질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훨씬 빠르게 지적 기능의 저하 뿐 아니라 인격의 황폐화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투약을 계속 중인 환자들은 정해진 약물의 용량을 어기거나 함부로 투약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급작스러운 약물의 중단은 때로 간질 중첩 상태(status epilepticus)를 유발하여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고 또 그 상태에서 회복하여도 심각한 뇌 기능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질 중첩 상태란 한 번의 간질이 발생한 후 그것이 채 다 끝나기도 전에 계속 새로운 발작이 일어나는 상태이다.

실제로 간질은 지금까지 기술한 것보다 더 많은 종류가 있고 그 증상도 다양하다. 다만 지금까지는 필자가 경험했던 예 중 특히 기억에 남아 있는 것만을 기술했을 뿐이다.

한 가지만 더 강조한다면 간질은 이제 결코 불치의 병이 아니고, 적절히 치료할 경우 대부분의 환자에서 생활의 질(質)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간질을 앓고 있는 모든 환자들이 희망을 갖고 활기찬 생활을 하기를 바란다.